

러시아의 식육의 생산, 소비, 수출입 동향¹⁾

(원문) ALIC 조사 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허 덕*, 김종진**

1. 머릿말

러시아는 한때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이였다. 하지만, 2013년경부터 곡물 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출국으로 돌아섰다. 2017/18년도(7월~이듬해 6월)에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 되었다.

1990년대에는 축산업이 대폭 축소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의 시장 경제 이행에 따른 정부의 식량 자급을 제고 방안으로 양돈과 양계를 중심으로 회복되는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축산물은 자급을 달성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²⁾.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러시아의 축산물 생산·소비에 미친 영향과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비롯된 EU 산 농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이하 ‘금수 조치’)가 2021년 말까지 계속되는 등 러시아 축산물 수출입에 관한 과제는 적지 않은 상황이며, 국제 수급에 미치는 영향 또한 추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의 식육 생산, 소비, 수출입 동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 중의 환율은 1미국 달러=115엔=1,175원(2021년 10월 말일 TTS-달러 환율, 114.67엔, 2021년 10월 말일 달러/원 기준 환율: 1,174.61원), 1루블=1.86엔=16.6원(동 TTS-달러 환율=1.86엔, 2021년 10월 말일 러시아 루블/원 기준 환율: 16.57원)을 사용하였다³⁾.

1) 이 글은 농축산업진흥기구(ALIC)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870.html)의 내용을 중심으로 번역·보완·수정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2) 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2019년 7월호의 「二兎を追うロシア農業-穀物輸出と畜産物生産・輸出の拡大-」(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0662.html) 및 허 덕, 박지원, 김태런,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 촉진과 정책의 기본 방향- 농축산물 무역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9권 6호(2020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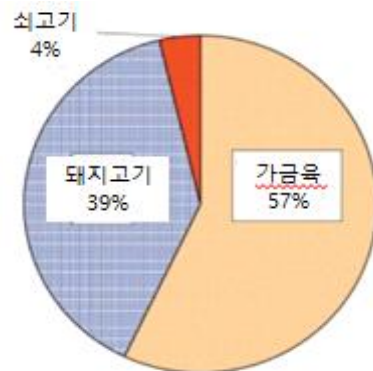
3) 미즈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주식회사 ‘월말·중순 평균 환율’ 월말 TTS시세. 한국 원화는 ‘환율플러스’ 앱을 이용하였다.

2. 식육 생산 동향

2019년의 러시아에서의 식육 생산량을 보면, 전체 60% 조금 못 미치는 물량을 가금육이 차지하고 있으며,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 원료로 이용이 많은 돼지고기가 40% 조금 못 미치는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1). 반면, 쇠고기는 이들 축종과 비교하여 생산에 시간이 소요되며 일정한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생산이 적어, 육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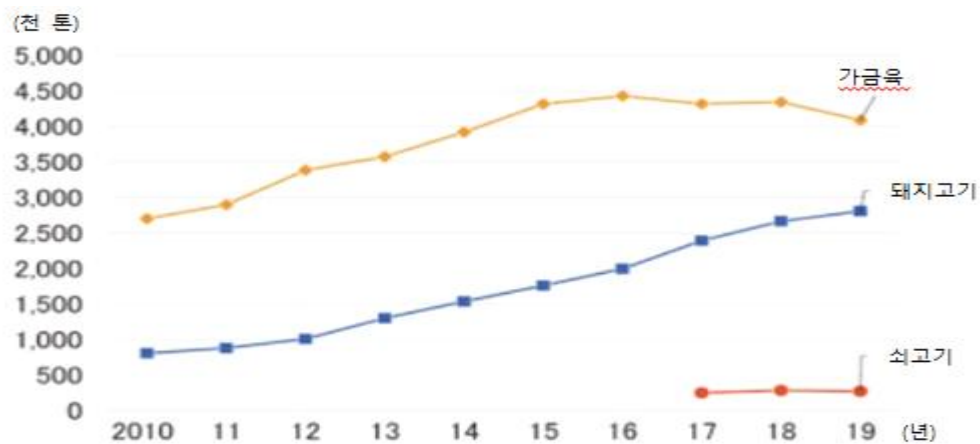
같은 해 축종별 생산량(지육중량 기준)은 가금육이 408만 8,715톤(전년 대비 5.9% 감소), 돼지고기는 280만 5,545톤(전년 대비 5.3% 증가), 쇠고기는 26만 8,061톤(전년 대비 4.5% 감소)이었다(그림 2).

그림 1 식육 생산량에서 점하는 축종별 비율(2019년)



자료: 러시아연방통계국의 자료에 기초하여 ALIC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2 축종별 생산량 추이



주: 쇠고기는 러시아연방통계국의 분류법 변경으로 인하여 2017년 이후 수치만 게재

자료: 러시아연방통계국.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1) 육용우

러시아의 쇠고기 생산량은 낙농부문에서 공급된 유용종(乳用種)이 주류이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증체율과 기온 차가 적응력에서 육용전용종(肉用專用種)인 애버딘 앵거스종⁴⁾이 사육되고 있다. 유용종에 비해 축사의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곡물 비육장(feed-lot⁵⁾)에서의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다(사진 1~3).

번식에서 비육까지 일관 경영(一貫 經營)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 2개소만 해당되며, 이 밖의 육우 비육 기업은 외부에서 비육소우(肥肉素牛, 송아지 등)를 구입하고 있다. 구입된 비육소우 등의 수송은 육로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전에는 비용 면에서 철도도 이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수송에 오랜 시간을 요하는 생체 유지라는 관점에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철도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 선박과 항공기를 사용한 수송도 취급하는 기업과 공항이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적은 편이다. 육로로 수송하는 경우, 유럽에서의 수송 일수가 최대 5일 정도로 짧고 검역소에서 농장으로 직접 운반할 수 있다는 이점도 높아 주로 이용되고 있는 루트이다.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향한 움직임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⁶⁾) 발생을 계기로 축산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로드맵으로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축산업 발전 전략’이 실시되고 있다. 이 전략에서 증두(增頭) 대책으로서, 봄 분만을 늘리고, 성우는 겨울에 간에 축사에서 사육할 것 등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축산업의 번식 기반 정비 등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유용종뿐만 아니라 육용전용종의 쇠고기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 전략으로 육용 전용종 및 재래종 사육 마릿수는 약 300만 마리(이 중 경산우는 54만 마리) 증가가 예상되면서, 쇠고기 생산량 중 육용전용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쇠고기 수입량은 2013년 대비 30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
- 4) 애버딘 앵거스 종(Aberdeen Angus). 고기 소의 한 품종. 원산지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동부 지역인 애버딘 앵거스 주(州)이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품종이다.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다리가 짧은 전형적인 고기소의 모습이다. 털빛은 검정색이며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품종과 교배하면 모두 뿔이 없는 새끼가 태어난다. 머리는 작고 이마가 넓으며 목이 굵다. 등선이 곧고 복부에 작은 흰 점이 있는 것도 있다. 체질이 튼튼하여 추위에 잘 견디며 방목에 적당하다. 지방질이 적당하여 육질이 좋고 빨리 성장하며 난산의 빈도가 적다. 성질이 거칠고 다소 신경질적이다. 일당 증체량(增體量)은 0.8kg, 도체율은 65~72%이다. 뼈가 12.8%로 적어 정육률이 높은 편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암컷이 27kg, 수컷이 29kg이나 성장하면 암컷은 450~550kg, 수컷은 800~1,000kg이다. 임신기간은 275~283일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 5) 곡물비육장(feed-lot, 穀物肥育場). 울타리를 치고 주로 농후사료를 급여하여 가축, 특히 소를 비육시키는 노천사육장. 육우비육장.(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 6)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2) 양돈

양돈에서는 다양한 품종이 사육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성장이 빠른 제품 비율이 55~67%, 지방 함유율이 21~32% 등의 특징을 가진 품종이 선호되면서, 대요크셔 종⁷⁾, 랜드레이스 종⁸⁾, 피에트렌 종⁹⁾을 교잡한 삼원교잡종(三元交雜種¹⁰⁾) 돼지가 많다. 많은 품종이 재래종을 바탕으로 개량되었으며, 조숙, 스트레스 내성 등이 품종 개량의 초점이다(사진 4).

(3) 양계

양계는 소규모 개인경영 사육도 많고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업 경영에서는 단기간에 체중이 증가하는 품종(브로일러)이 사육되고 있다(사진 5).

7) 대요크셔(Large Yorkshire). 소목 멧돼지와 돼지. 몸무게는 암컷 300~340kg, 수컷 340~370kg이다. 영국 요크셔주(州) 지방의 재래종 돼지와 중국종 돼지를 교배시켜서 개량한 비육용 품종이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도입되어 사육하고 있다. 털빛갈은 흰색으로, 코는 약간 굽은 듯하며 뾰족하다. 귀는 길고 얇으며 앞으로 향하여 서 있다. 체형은 가슴이 깊고 넓으며, 등이 길고 편평하다. 한배에 10~13마리의 새끼를 낳지만, 온전히 자라는 것은 8마리 정도이다. 발육능력은 180일령의 몸무게가 90kg이고, 12개월의 몸무게가 150~190kg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8) 랜드레이스돼지(Landrace pig) 또는 덴마크랜드레이스돼지(Danish Landrace pig)는 덴마크 재래종을 대요크셔로 개량한 흰돼지이다. 머리가 작고 귀는 앞쪽으로 늘어졌으며, 몸통이 길어서 대퇴부가 발달되어 있다. 지방질은 낮고 발육이 빨라 생후 6개월에 90-100kg, 다 자란 수돼지는 300-350kg, 암컷은 250kg 정도이다. 번식능력이 우수하여 어미돼지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배에 8-12마리 낳는다. 갓난 새끼돼지 몸무게는 1.3-1.5kg이고, 어미돼지의 하루 젖생산량은 7-12kg으로 우수하다. 피부병에 약한 것이 단점이다. 영어 “랜드레이스(landrace)”는 “토종”이라는 뜻의 일반명사이며, 재래 품종 돼지를 일컫는다. 그 중 덴마크 토종 돼지가 대문자 “랜드레이스(Landrace)”로 흔히 일컬어진다.(출처: 위키백과 우리모두의 백과 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9) 러시아 등지에서 개량한 품종 중 하나(필자 해설)

10) 삼원교잡종(三元交雜種, three-way cross hybrid). 삼원교잡에 의하여 된 품종.(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terms.naver.com/>)



(4) 생산자 출하 가격

축종별의 생산자 출하 가격의 추이는 <표 1>과 같다.

육우 생산자 출하가격은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추이하고 있다. 2019년에는 생체 중 1톤당 10만 7,004루블(19만 9,027엔, 177만 6,266원)으로 전년 대비 2.6% 하락하였다.

육돈의 생산자 출하가격은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다. 2019년에는 1톤 당 10만 7,922루블(20만 734엔, 179만 1,505원)로 전년 대비 1.4% 하락하였다.

가금의 생산자 출하가격은 2017, 2018년 2년 연속 하락하였지만, 2019년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생체 1톤 당 8만 1,631루블(15만 1,833엔, 135만 5,075원)로 전년 대비 11.1% 하락하였다.

표 1 축종별 생산자 출하가격 추이

단위: 엔/톤

축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	113,530	130,344	144,110	142,915	149,578	183,795	193,973	191,735	194,075	199,027
돼지	151,143	159,684	169,698	159,382	192,273	219,494	208,291	197,039	203,555	200,734
가금	99,064	102,952	105,263	106,525	118,459	138,623	147,284	138,681	136,681	151,833

주 1: 1루블 = 1.86엔으로 환산

2: 생체 중량 당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국,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5) 생산측면에서의 과제

가) 도축장 등의 위생 기준

러시아 식육 동맹은 식육 관련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러시아 식육 동맹에 따르면, 국내의 도축장 3분의 1이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근대적 설비로의 갱신이 당면의 과제라고 한다. 또한, 도축 처리 시의 위생 관리는 육질에 영향을 주지만,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곳도 많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가 2012년에 수립한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 식품 산업·식품 가공업의 발전 전략’에 따르면,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료 생산 기반 부족과 소 도축장 처리 능력 부족을 꼽았으며, 도축 및 도축 시설 근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외의 다른 과제로 HACCP¹¹⁾ 도입이나 생산 시설, 처리 시설의 환경 부하 저감 등도 들 수 있다(사진 6~8).



나)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2020년 9월에 ‘2030년까지 러시아 연방 식품 산업·식품 가공업의 발전 전략’의 수립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현재의 축산업계 문제점으로 1) 전문 교육 부족, 2) 지역 간 가축 유통을 위한 인프라 정비, 3) 대규모 비육장과 가공 기업에서 축산 농가의 피드백 시스템 결여¹²⁾ 등이 꼽혔다.

전국 쇠고기 생산자 동맹에 따르면, 러시아의 쇠고기 생산에서의 첫 번째 문제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문제로는 가축의

11)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12)러시아에서는 식용 가축의 거의 절반을 소규모 경영체가 차지하고 있다.

비육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업체 간의 개체에 차이가 많아, 육질에도 큰 차이가 나오고 있다는 점으로 알려졌다.

국내 쇠고기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300~400만 마리의 번식 암소가 필요하지만, 현재 약 120만 마리 정도의 사육에 그치고 있다. 또 소의 마릿수를 늘리기 위한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없어, 주변 국가의 러시아산 암송아지 수요가 높은 것도 쇠고기 생산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아울러, 5000만 헥타르에 이르는 번식용 목초지의 대부분이 방치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국내 쇠고기 생산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금수 조치로 인한 영향 또한 적지 않지만, 쇠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금수 조치는 보복 조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러시아 생산자에게는 경쟁 상대가 없어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찬스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주요 육류 수출국인 남미 국가들은 이 금수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러시아의 식육 생산량 증가에 기여한 것은 대출에 필요한 이자 보조 제도라는 설명도 나온다.

또 2018년 냉장 닭고기와 유제품 시장 개방에 관하여 러시아도 가입한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¹³⁾이 중국과 무역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도 러시아의 정육 산업 발전의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6) 향후 전망

러시아에서는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때로는 과잉 생산 가능성도 있어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 확보도 요구된다.

대규모 경영체의 생산 증가로 인해 2020년 1~6월 육류 생산량(도체중량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였다. 양돈과 양계는 소규모 경영에서 가축 질병 발생이 많다. 앞으로는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경영체의 생산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돼지고기는 용도가 다양하고 가격도 비교적 싸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며, 식육산업을 발전시키는 주도 세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돼지고기와 가금육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수입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급률이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¹⁴⁾)나 아프리카 돼

13)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회원국 경제의 전면적 근대화, 제후, 경쟁력 강화 및 회원국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정적 성장에 필요한 조건 정비를 목적으로, 2015년 1월 하루에 조약이 발효된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러시아가 가입하고 있는 경제 동맹을 말한다. 또한 회원국 간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면세가 된다.

14) 조류인플루엔자(avian flu)란 닭이나 오리나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Virus)의 하나로써, 일종의 동물전염병이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A, B형이 인체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그 중 A형만이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지열병 등 가축 질병의 발생 등 불안 요소도 안고 있다.

3. 수출입 동향

정부의 국가 프로젝트로서 농산물을 포함한 러시아 상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업과 수출’이 있다. 2018~24년을 대상 기간으로 하며, ‘공업 수출’, ‘농산물 수출’, ‘국제 무역 물류’, ‘서비스 수출’, ‘국제 협업과 수출’을 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 시책이라는 다섯 가지 연방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예산은 9,568억 루블(1조 7,796억 엔, 15조 8,828.8억 원)인데, 그 가운데 ‘농산물 수출’ 예산은 4,068억 루블(7,566억 엔, 6조 7,528.8억 원)로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마지막 연도인 2024년의 연간 농산물 수출 목표액으로 450억 루블(837억 엔, 7,470억 원)을 내세우고 있다.

(1) 쇠고기

2020년 쇠고기 수출입 상황을 보면, 수출량은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 등으로 1만 6,127톤(전년 대비 2.7배)으로 늘었지만, 수입량은 26만 1,351톤(전년 대비 13.5% 감소)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이 수출을 웃돌고 있다(그림 3, 4).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 금수 조치에 따라 다음 해인 2015년부터 대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에 의해 발생한 쇠고기 공급 부족은 남미에서 수입분으로는 보완하지 못하여 쇠고기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바 있다.

또 EAEU를 제외한 최대 쇠고기 수입국은 오랫동안 브라질이었지만, 러시아는 브라질산 쇠고기에서 락토파민(근육 성장촉진제¹⁵⁾)이 검출되었다며 2017년 12월에 수입 중단 조치를 강구하였다¹⁶⁾. 그 결과 브라질에서의 수입량은 2017년 13만 7,164톤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hemagglutinin(HA)과 neuraminidase(NA)라는 두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HA는 18종이, NA는 11종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 단백질의 조합에 따라 모두 198종류(=18×11)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대변에 접촉한 조류들이 다시 감염되는 형태로 전파되고, 특히 인플루엔자에 오염된 대변이 구강을 통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류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에 오염된 기구, 매개체, 사료, 새장, 옷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철새들이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철새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자연 병원소로서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철새들의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닭이나 오리나 같은 가금류에 옮겨졌을 때에는 고병원성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닭의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이 되면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폐사하게 된다. 폐사율은 병원성에 따라 다른데 병원성이 높은 경우 폐사율이 높아지게 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식품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

¹⁵⁾락토파민(ractopamine). 베타-아드레날린 작용성 촉진제의 하나. 가축의 단백질 합성 증가, 지방질 분해 촉진, 몸무게 증가, 사료 효율 따위를 증가시킨다. 동물의 조직에 흡수와 제거가 빨라 10일이 지나면 잔류량은 거의 없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과학사전, <https://terms.naver.com/>)

(총 수입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37.9%)에서 2018년 7,723톤(동 2.2%)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8년 11월에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2020년에는 5만 1,895톤(동 19.9%)까지 회복되었다. 하지만, 최대 쇠고기 수입국가는 6만 6,528톤(동 25.5%)을 수입한 파라과이가 차지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쇠고기 관세할당제도(2003년에 도입: 쿼터 내에서는 관세율 제로, 쿼터 외에서는 관세율 50%)를 폐지하고, 27.5%의 일률적인 관세율을 도입하는 결정을 2020년 11월에 승인하였다¹⁷⁾. 관세할당제도 폐지에 따라 면세로 수입되는 쇠고기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수입 쇠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물량 감소가 예상되었다.

그림 3 수출 대상국별 쇠고기 수출량 추이



주 1: HS 코드는 0201, 0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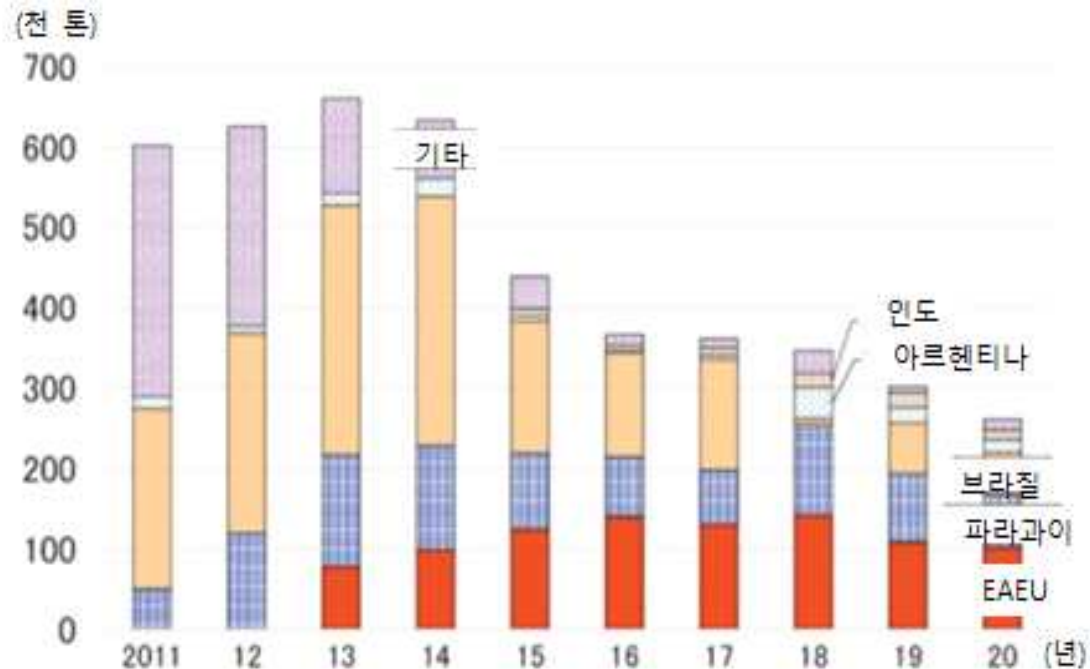
2: EAEU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의 합계

자료: 「Global Trade Atlas」.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16) 농축산업진흥기구, 「海外情報「ロシア向け牛・豚肉の輸出停止に伴う現地の反応(ブラジル)」」(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090.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1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허 덕, 김태련, 「러시아의 코로나19 사태와 식량안보」,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5호(2021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특히 곡물 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러시아의 수출관세 할당제도 등 수출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련, 「러시아의 곡물 수출 규제(개요)」,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5호(2021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허 덕, 박지원, 김태련,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 촉진과 정책의 기본 방향」, 「해외곡물시장동향」 제9권 제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4 수입 대상국별 쇠고기 수입량 추이



주 1: HS 코드는 0201, 0202

2: EAEU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의 합계

자료: 「Global Trade Atlas」,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2) 돼지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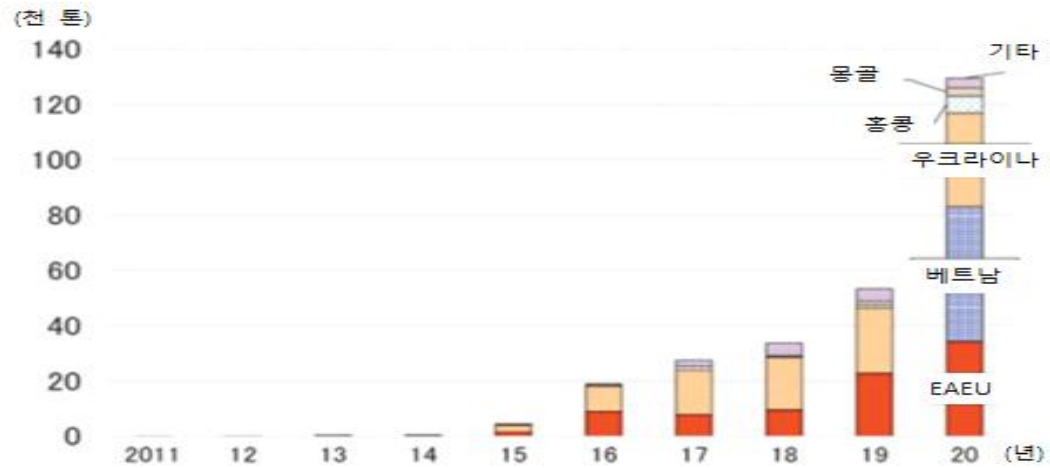
쇠고기에 비하여 돼지고기는 수출량이 수입 물량을 웃돌아 추이하고 있다. 2020년 돼지고기 수출 물량은 12만 9,581톤(전년 대비 2.4배)이었다(그림 5). 이 가운데 EAEU 역내 수출은 전체의 26.4%를 차지하지만, 같은 해 베트남 수출이 크게 성장하여, 전체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라 베트남에서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하였던 영향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 러시아산 돼지고기 수입을 해금하지 않고, 베트남은 중국이 승인한 러시아 국내 기업에서 제조된 돼지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2020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6,387톤(동 91.9% 감소)으로 급감하였다(그림 6). 이는 2020년에 관세할당제도가 폐지되어 25%의 관세로 단일화된 것¹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EAEU 역내에서의 수입은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되었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과 마찬가지로 금수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8) 농축산업진흥기구, 『畜産の情報』 2019년 7월호, 「二兎を追うロシア農業-穀物輸出と畜産物生産・輸出の拡大-」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0662.html#title4)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5 수출 대상국별 돼지고기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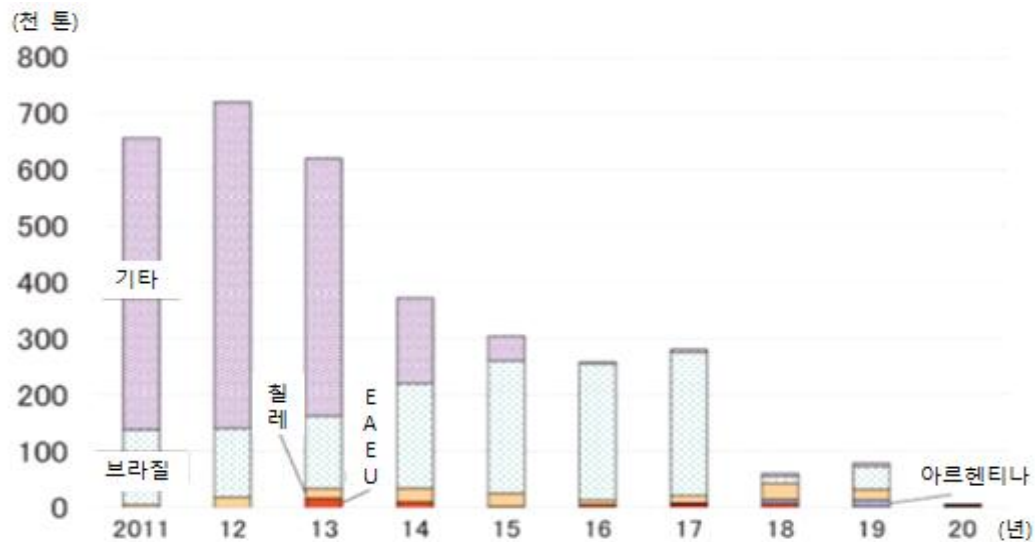


주 1: HS 코드는 0203

2: EAEU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벨라루스의 합계

자료: 「Global Trade Atlas」,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6 수출 대상국별 돼지고기 수입량 추이



주 1: HS 코드는 0203

2: EAEU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벨라루스의 합계

자료: 「Global Trade Atlas」,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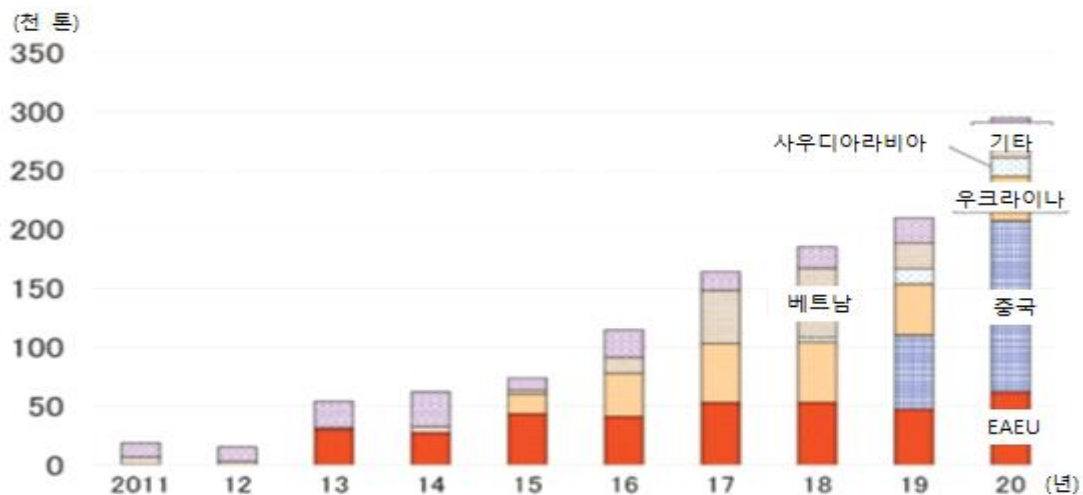
(3) 가금육

가금육은 최근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도 확대되고 있다. 2020년 러시아의 가금육 수출 물량은 29만 4,817톤(전년 대비 40.4% 증가)으로 처음으로 수출 물량이 수입 물량을 넘어섰다(그림 7, 8). 이 가운데 EAEU 역내 수출은 전체의 21.0%를 차

지하고 있다. 수출량이 수입 물량을 넘어서면서 가금육은 러시아의 내수를 거의 조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가금육 수입량은 22만 8,853톤(전년 대비 0.6% 증가)이 되었다. 이 가운데 EAEU 역내로 부터의 수입은 전체의 59.1%를 차지하고 있다. 가금육 수입량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이는 금수조치에 따른 서구 국가에서 수입이 중단되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다.

그림 7 수출 대상국별 가금육 수출량 추이



주 1: HS 코드는 0207

2: EAEU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벨라루스의 합계

자료: 「Global Trade Atlas」,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8 수출 대상국별 가금육 수입량 추이



주 1: HS 코드는 0207

2: EAEU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벨라루스의 합계

자료: 「Global Trade Atlas」,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4) 향후 전망

러시아의 축산물 생산은, 쇠고기를 제외하고는, 최근 3~4년 동안에 국내 수요를 거의 충족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수출에도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문에 대형 정육 기업 등이 수출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20년 식육 수출 물량은 코로나 사태에 있으면서도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출 증가의 주된 요인은 중국 시장 개방에 따른 것이지만, 2019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공급 부족으로 베트남이 러시아산 돼지고기 수입을 시작한 영향도 있다. 향후에도 베트남은 유망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아시아, 중동, 북 아프리카가 유망한 시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을 지향하는 기업들은 이들 지역의 소비 특성 조사를 시작하였다. 향후에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부가가치 제품 수출 비중을 확대시키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육류업계는 생산량을 현재 2~3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쇠고기와 가금육 수출 물량의 대부분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갑자기 국경을 폐쇄할 경우 금방 판로를 바꿀 수 없다는 등의 과제가 있다. 한편, 기후 조건, 수자원, 토지 자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는 아시아 전체에 식육을 수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있다고 한다.

식육산업의 국가 기관과 실업계의 대화를 지원하는 전국식육협회 실행 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수출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입 물량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면 2024년에는 수출량은 금액 기준으로 지금의 3배가 되는 15억 달러(1,725억 엔, 1조 7,625억 원)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 러시아 농업부는 2020년 10월 러시아산 농산물 수입국의 식품 기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수출 안내서를 작성하였다. 러시아 연방 동식물 검역 감독국에서는 수출 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수출 상대국 특성을 조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에 따르면, 식육 기업 상당수가 수출 허가를 취득한 후에 해당 수출국의 특성(조리 방법이나 포장도 포함)을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비원료품 수출을 2030년까지 2019~2020년 대비 70% 확대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 도달하기 위해 수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수출 기업 지원금으로써 연방 예산에서 전년 대비 30% 증가한 960억 루블(1,786억 엔, 1조 5,936억 원)을 출연하였다.

(5) 일본 수출 전망

2021년 10월 시점에서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한 식육은 가열된 우제류(소·돼지 등) 제품 및 가열 후 가금육 제품만 수출할 수 있다. 또한 가열 후 우제류 제품과

가열 후 가금육 제품의 대일 수출 인증을 각각 3개사가 취득하였으며, 2019년에는 일본의 슈퍼마켓에서 러시아산 햄이 판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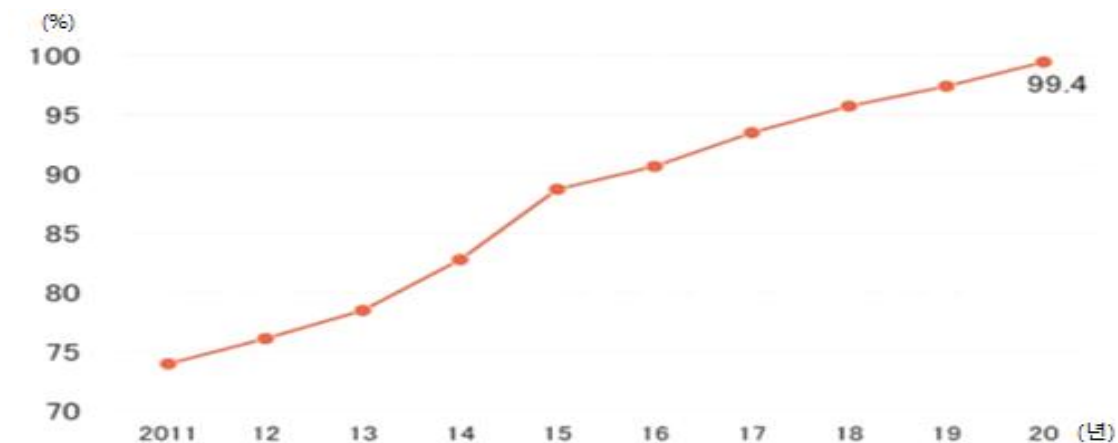
가금육에 관해서는 최근 러시아 각지에서 간헐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단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본 수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4. 소비 동향

(1) 자급률

러시아 연방 통계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식육·식육 제품의 자급률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그림 9). 이는 쇠고기 소비가 적은 가운데 돼지고기와 가금육 생산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요인이다. 특히 금수 조치 이후에는 2014년이 82.8%(전년 대비 4.3포인트 증가), 2015년이 88.7%(전년 대비 5.9포인트 증가)로 증가율이 현저하였다. 이후에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99.4%(속보치)로 100%에 가까운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9 식육·식육제품 자급률 추이



주 1: 2020년은 속보치

2: 중량 베이스

자료: 러시아연방통계국 자료에 기초하여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2) 소비 형태

축종별 판매 루트의 비율은 <표 2>와 같다. 가공업자 전용 이외에는 부분육, 정육으로 유통되며, 소매점, 외식점 가정 등에서 최종 가공, 조리되어 소비된다. 도매업

자는 생산자와 가공업체들은 안정된 판매처인, 소매, 외식산업에 있어서는 인증·위생 증명 서류를 갖춘 안정된 공급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도매업체를 통하지 않고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소매, 외식 산업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도매업자는 수출입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도매업자는 구입처나 판매처로 개별적으로 상대 매매를 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수입육은 비용이 높기 때문에 가공업자가 사용하는 부분은 적지만, 본래대로라면 가공용으로 수입된 생고기가 슈퍼마켓이나 레스토랑에서 직접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연이 당국이 문제를 삼고 있다.

식육 판매 루트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변화하고 있다. 소규모 소매점 등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저 가격대의 상품 매출이 늘었다. 한편으로는 가장 영향이 컸던 부문이 외식 호텔 업계인데, 2020년 외식 부문을 대상으로 한 정육 판매량은 전년 대비 26.8%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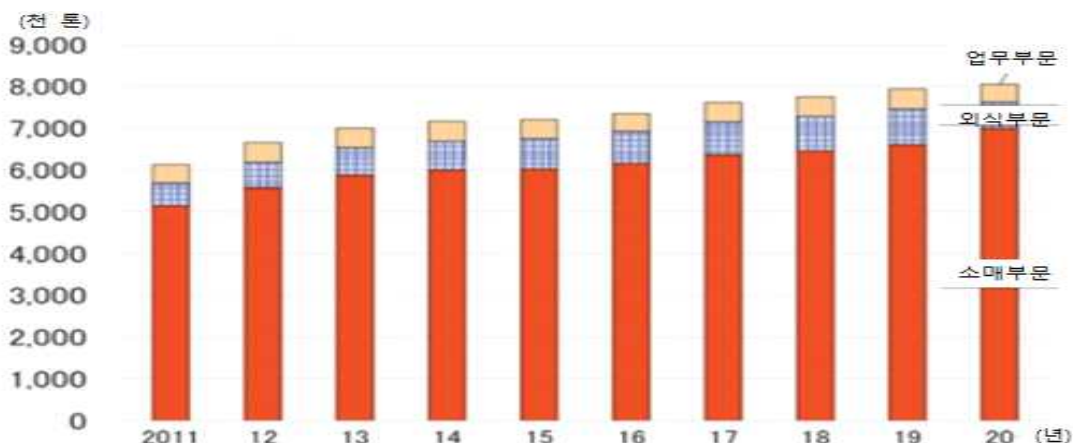
그림 10 축종별 판매 루트의 비율(%)

판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공업자	32.4	30.0	25.0
도매업자	10.9	12.5	11.0
직매	2.0	1.0	1.5
시장	17.2	16.3	10.5
소매	15.7	14.9	22.0
외식산업	10.8	12.0	13.2
기타	11.0	13.3	16.8

주: 가공업자는 소시지 등 식육조제품 메이커

자료: 시장관계자 청취조사에 기초하여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10 부문별 식육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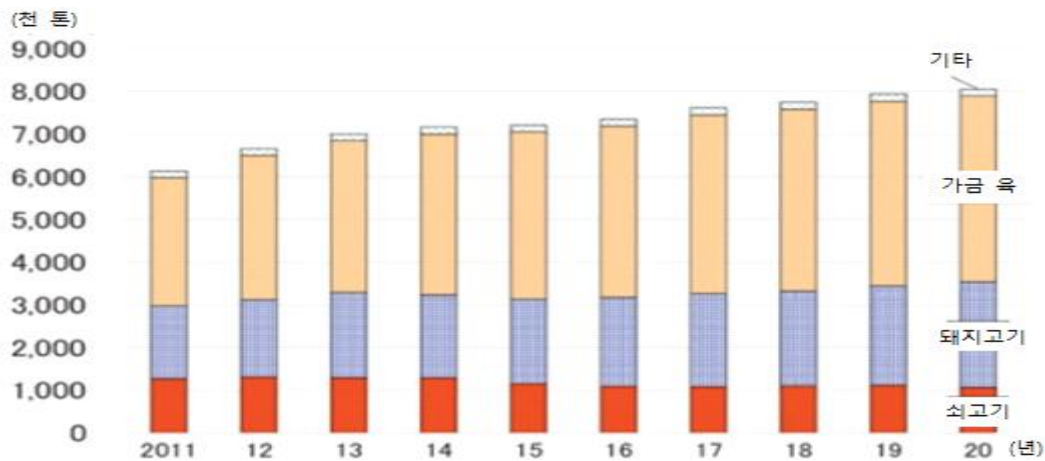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자료를 기초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3) 판매량 추이

식육의 총 판매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총 판매량은 805만 6,400톤(전년 대비 1.4% 증가)이었다(그림 11). 축종별로는 돼지고기, 가금육은 전년보다 많았지만, 쇠고기는 작년을 밑돌았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식산업의 휴업 등과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육을 선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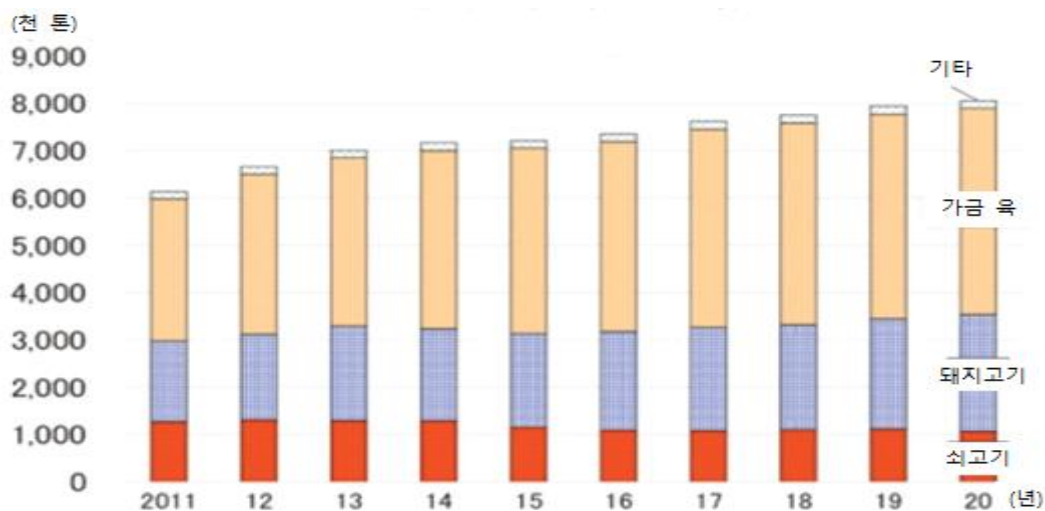
외식 산업의 휴업과 대형 정육 기업이 소매 판매에 주력하게 된 데다, 집안에서의 수요도 있어, 소매 부문에서 육류 판매량은 증가하였다(그림 12).

그림 11 축종별 판매량 추이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자료를 기초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12 소매부문의 축종별 판매량 추이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자료를 기초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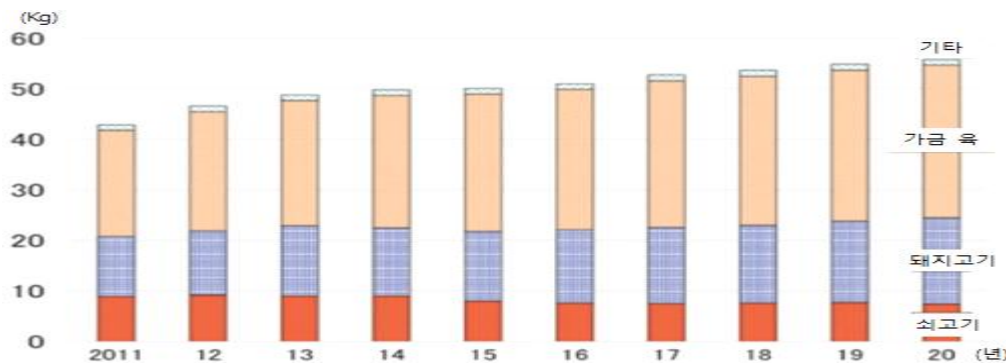
(4) 향후 전망

최근 식육 소비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 농업성 농업 분석 센터에 따르면, 2021년에는 육류 생산량은 소비량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러시아 농업은행 산하 산업분야 감사센터에 따르면, 2020년에 러시아 연간 1인당 식육 소비량은 러시아의 식육 수출 물량과 함께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다(그림 13). 그러나 러시아 국내의 식육 소비 확대 국면은 이미 지났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간 1~2%의 완만한 증가 페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고 한다.

한편, 향후 식육산업의 발전은 국내 소비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수출 지향의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수출 시장이 확대되면 투자 의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물량의 증가는 수출 수요가 없는 부위에 대한 국내 시장의 확보도 필요하다.

러시아에서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이후로 국민 소득 감소와 식육 수요 부진이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다. 러시아의 식육 소비량은 유럽 제국가보다 적지만, 전통적으로 육류를 선호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식육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3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 추이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자료를 기초로 농축산업진흥기구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5. 코로나19의 영향

(1) 생산에 미친 영향

러시아의 식육 생산업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 고르바초프 기념 연방식품 시스템 과학센터가 식육업체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더 많은 식육업체들은 전략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완전히 정지했다’가 19%, ‘연기했다’가 29%, ‘재검토했다’가 33%, ‘예정대로 실시하고 있다’가 43%였다. 또, ‘생산체제를 축소하고 있다’가 48%, ‘인원 및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43%였다.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감세’라는 응답이 95%를 차지했다. 또 식육산업 관계자에 대한 ‘보조금 출연’이 유용하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생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판매를 강화한다(42%)와 인터넷 사업에 투자할 것(37%)을 계획하고, 생산 체제, 시장 조사, 연구 개발, 선전 광고 활동,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로 볼 때, 코로나19 사태 수습 후에는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기대된다.

전국 식육 가공업자 동맹에 따르면, 식육 가공산업은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산업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아 국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지시로 식육 메이커는 전 종업원에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확대 방지 조치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루블화 약세로 포장재 원료 등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 압력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육기업은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 비용 증가분을 모두 반영시키면 소비자 이탈에 결부되는 것이다. 또 소매 체인점과의 계약은 3개월 단위의 경우가 많아, 계약 기간 중에 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안정적인 육류 소비에는 가격 안정이 중요하지만, 가격의 유연성도 필요하다며, 인상을 못하면 식육기업의 손실 확대가 우려된다. 기업들이 대폭 인상을 하게 되면 식육 수요는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품 가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 식육시설 등에 미친 영향

식육 가공장 등 조업은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식육 가공장에서 클러스터 발생 사례로 2020년 6월 우에리키에 루키 가공장 종업원 63명 감염이 확인되었다. 감염자 대부분은 소시지 생산 라인 종업원이다. 이 공장이 있는 북쪽 서쪽 끝에 위치하는 프스코프 주의 지사는 “대규모 클러스터의 발생은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다른 기업에도 감염이 퍼지게 되면, 이들 기업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폐쇄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복지 감독국 조사에 따르면, 감기 징후가 있는 종업원들이 출근했으나, 경영진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종업원들은 감기약 복용 등으로 체온을 낮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은 그 사이에도 가동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클러스터의 진압은 1개월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밖에 대규모 클러스터 발생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 식육가공업자 동맹은 다수의 종업원 감염은 공장의 생산 능력과 생산량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 노동허가서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러시아에는 실업자문제는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 일로 다수의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 즉시 인원을 보충하기는 어렵다.

(3) 국내 가격에 미친 영향

식품시장과 소비자에게 코로나19의 영향은 2020년 3월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감염이 확산되자 일부 지자체가 ‘고차 경계 체제’ 도입을 발표하여 외출 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면서 식품 택배 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소매시장에서는 2020년 봄 외출 제한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혼란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그 후 진정되어 돼지고기 가격도 다시 하락하였고, 돼지고기에 이끌려 가금육 가격도 하락하였다.

또한, 연방 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러시아의 육류 물가 상승률은 2.7%로, 식품 전체(알코올 음료 제외)로는 7.2%로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인 4.9%를 밑돌았다.

(4) 수출입에 미친 영향

2020년 11월에는 중국 광둥성(廣東省) 위생 당국이 러시아산 냉동 닭다리 포장 자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바이러스는 아르헨티나산 닭날개 고기에서도 검출되면서, 중국 당국은 이들 제품이 보관됐던 중국 국내 창고의 전 종업원을 검사를 하였으나 감염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뒤 중국 당국은 러시아 측에 향후 대책 등을 공식적으로 조회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연방 동식물 위생 감독청은 러시아 수출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품의 포장 자재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임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검사는 동식물 위생감독청 산하 연방 동물건강 보호센터가 개발한 키트로 신속히 할 수 있다고 한다.

(5) 육류 업계에 의한 코로나19 대책

국제 식품 관련 산업 노동조합연합회가 식육 가공업체용으로 작성한 코로나19 대책 매뉴얼에는 코로나19가 식육 가공기업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요인이나 현장에서의 주의할 점을 담고 있다. 종업원의 주택에서의 행동에 관한 주의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충분한 위생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러시아에서는 당국의 정육산업용에 관한 특별한 지령은 나오지 않았다. 2020년 봄에 감염이 확대되었을 당시 농업부가 농업·식품 제조 기업용으로 안정된 가동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통보를 냈을 뿐이다.

일반적인 대책으로서 농업부는 (1) 축산 시설의 방역·위생 관리 규칙을 준수할 것, 특히 시설 외에 감염을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시설의 관리는 특정의 종업원이 실시하고, 외부인이나 동물을 출입하지 않는 등)하고, 소독 지역을 마련할 것, (2) 축산 시설에서 사람과 가축의 긴밀한 접촉이나 가축의 미소유자를 피할 것, (3) 축산 시설의 건강한 종업원만이 작업을 행할 것, (4) 감염 중 또는 자기 격리 중의 종업원이 있는 축산 시설에서 가축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물 검역 당국의 협조 아래 해당 가축의 감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것, (5) 농업부가 2020년 3월 27일 통보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농업·식품 제조업체의 가동을 지키기 위한 권장 사항’을 준수할 것 등을 권장하고 있다.

6. 맺음말

러시아의 축산물 생산량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량은 EU산 농축산물의 금수 조치로 인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식육·식육 제품의 자급률은 100% 가까이 상승하였다. 한편으로는 국내 소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통한 경제 침체 등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급 과잉이 되지 않도록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식량 자급률 제고 방침을 수립하여 돼지고기, 가금육을 중심으로 축산물 생산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육류·식육 제품의 자급률은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비롯된 금수 조치에 따른 수입 물량이 감소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자급율이 99.4%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량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식육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 등으로 부진하다. 때문에 러시아 국내에서 공급 과잉이 되지 않도록 수출 확대 노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0년에는 대형 정육기업 등이 수출에 주력한 결과, 코로나19 사태에 있으면서도, 수출량은 전년을 넘어서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출 물량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서 중국 시장 개방이 꼽혔으며, 쇠고기, 가금육 수출 물량의 절반은 중국이다. 앞으로는 중국 이외의 새로운 수출지 개발을 위한 정부도 안내서를 작성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조류 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수출 수요가 없는 부위를 국내에서 소비할 필요가 발생하는 등 수출을 위한 과제가 산적된 가운데, 향후 러시아의 생산 및 수출 동향이 주목되는 바이다.

부록 러시아의 금수 조치

2014년 8월 7일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항하는 형태로 EU,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에 농산물 등 금수 조치를 도입하였다. 그 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우크라이나가 추가 대상국으로 더해졌다.

당초의 대상 품목은 모든 품종의 소, 가금, 돼지고기 가공품,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유제품 및 치즈, 소시지, 채소, 과일, 견과류였고, 여러 차례 대상 품목이 확대되었으며, 2021년 9월 시점에서는 아래 <부표>와 같다.

부표 러시아로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주요 제재 대상품 리스트

유라시아 경제동맹 무역품목 코드	품목명
0103(0103100000은 제외)	산 돼지(번식용 순수종은 제외)
0201, 0202	쇠고기(신선, 냉장, 냉동)
0203	돼지고기(신선, 냉장, 냉동)
0207	가금육(신선, 냉장, 냉동)
0210	염장, 염수절임, 건조, 훈연가공한 고기
0301(0301110000, 0301190000을 제외)	활어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어개류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우유유제품
0701, 070200000, 0703, 07404, 0705, 0706, 070700,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714	채소류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3	과일, 넛트류
060100	소시지 기타 이를 포함한 물품(고기, 부스러기고기, 피로 제조된 것) 및 이들 제품을 기초로 한 조제육 식품
1901901100, 1901909100, 2106909200, 2106909804, 2106909805, 2106909809	식품, 조제식료품
1901909900	치즈제조법에 의해 제조된 식품 및 조제 식료품으로, 유지방분 1.5% 이상인 것

자료: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에서 재인용

또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품목을 정하였으며, 내용은 수시로 갱신되고 있다.

이 정부는 2015년 이후 농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프로그램 ‘농업 복합체의 발전’에 의한 2019년의 예산 부담액은 2013년 대비 1.5배인 3,079억 루블(5,727억 엔, 5조 1,111.4억 원)이었다. 농업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조금을 포함한 기업의 수익률도 향상되었는데, 2013년 7.3%에서 2018년에는 12.5%로 늘

어났다. 그러나 2014년 8월 금수조치 대상으로 한 품목도 포함하여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 국산화가 진행되지 않은 품목도 있다.

2012년에 식량 안보를 확립한 후에 식량 수출 대책에 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식품 가공산업 발전 전략이 수립되고, 8년간 수입량을 대폭 삭감된 것은 식육뿐이며, 2019년에는 2013년 대비 65% 삭감에 성공하였지만, 그래도 이 전략의 목표치를 2.8포인트 하회하고 있다.

또한 금수 조치 발동 전까지는 러시아에 수입되는 유제품의 43%는 EU산이었는데, 발동 후에는 벨라루스산이 EU산 대체하였다. 그 비율은 39%에서 79%로 확대시켰다. 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식육 수입에 관해서도 벨라루스는 EU산 대체를 높은 비율로 확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허 덕, 김태련, ‘러시아의 코로나19 사태와 식량안보’,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5호(2021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김태련, ‘러시아의 곡물 수출 규제(개요)’,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5호(2021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박지원, 김태련,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 촉진과 정책의 기본 방향- 농축산물 무역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6호(2020년 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 조사 그룹, ‘ロシアにおける食肉の生産, 消費, 輸出入動向’, 「畜産の情報」海外情報, 2021년 11月号

농축산업진흥기구, ‘「二兎を追うロシア農業-穀物輸出と畜産物生産・輸出の拡大-」’, 『畜産の情報』2019년 7月号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0662.html)

네이버 지식백과 농식품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과학사전, <https://terms.naver.com/>)

위키백과 우리모두의 백과 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미즈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주식회사 ‘월말·중순 평균 환율’

러시아연방통계국

Euromonitor International

「Global Trade Atlas」.

환율플러스’ 앱